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 예배부름	..... 인 도 자
※ 예배기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36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
※ 교독문	..... 39(시편 95편)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540장(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배기도	..... 1부 한국회집사 2부 노재의집사
응답송	..... 찬 양 대
이달의찬양	..... “가서 제자 삼으라” .....
협력기도 / 한 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갈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도행전 전도축제를 축하하여 주옵소서.</li> <li>*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게 하소서.</li> <li>*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li> </ul>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누가복음12:35-38,42-48..... 박상귀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 ” 최세열목사
기도	.....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 330장(어둔 밤 쉬 되리니) .....
봉 헌	..... (남신도회) .....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 은 이
※ 찬 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 축 도	..... 담임목사
※ 축 복 송	.....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시백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가족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 기 도	새벽 5:00	1부	박기환집사		
찬 양 / 다 함			인도 : 담임목사		2부	강항구장로	
기 도 / 최경선권사			<b>금요기도회</b>				
본 문 / 사도행전 2:46			금요일 오후9시				
말 씬 / 최세열목사			소예배실				
*Acts29 -제3과정 사람			합심, 중보, 개인기도				
2강. 사람의 사명							
축 도 / 최세열목사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김금자 함경숙 김한순	다 음 주	1부	박기환집사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기 도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9월 최경선 이종열 김연학 김선영	다 음 주	1부	말 은 이		
		10월 김금자 안해숙 김장숙 최근배	성경봉독	2부	이영란권사		
식당봉사	금주 마리아회	다음주 에스더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함경숙권사			
헌신찬양	금주 남신도회	다음주	중보기도사역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 / 누가복음 12:35-38, 42-48**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사도, 제자, 그리스도인, 종, 하나님의 백성, 성도 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주님의 비유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의미가 깊은 표현은 종이라는 표현인데 이는 노예의 의미가 아니라 청지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태도와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 교회와 사회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는 말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인의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바른 청지기의 정신과 태도를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1.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35,37절)**

첫째, 깨어 있는 청지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단지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고기 잡던 베드로나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마태와 같이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의 태도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언제나 감당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깨어있는 청지기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이 오기까지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불은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와 더불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밝힌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마5:14-16)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영광의 의미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의미입니다. 청지기는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 감사의 빛을 비추어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2.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기분에 따라 즐기는 사람입니다(45,46).

47,48절을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종들에게는 더 큰 징벌이 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곧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의 무게만큼 주님의 기대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 재능, 물질,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종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하여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37,38,43), 주인이 수종 들어 줄 것이다(37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44절)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기쁨이 넘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신앙주제 / 9. 상한 감정의 치유(2013.9.15)

**제2과 우울증(마음의 감기)의 치유(열왕기상19:1-8)**

**말씀 살피기**

본문은 능력의 종이었지만 우울증에 빠져 괴로워하는 엘리야와 그에게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천사의 돌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엘리야의 내면에 우울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에 대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 너도 그들처럼 죽게 하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3,4절)
2. 능력의 종 엘리야가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2,3,10절)
3. 엘리야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치유책은 무엇입니까?(5-8)

**말 씬**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하게 되면 마음의 병인 ‘슬픔증’ 혹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우울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질병이라 하여 마음의 감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를 내버려 두면 극단적으로 자살에도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첫째, 시선을 변경하여 주변 형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멜산 제단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험박에 급변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했는데, 이는 그의 판단이 지나치게 현실을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4)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우울증을 치유하려면 지나치게 주변 형편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시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임마누엘(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우울증의 또 하나의 이유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10)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한 채 고독감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절망하고 만 것입니다. 지독한 고독감이나 소외감은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려운 현실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불안과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 자기 성실성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쉽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결합니다.

**말씀 적용**

1. 의욕을 상실해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말씀에서 살펴본 세 가지 치유책 중 지금 내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회주일입니다. 남신도회를 위하여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월 한 달 동안 태신자를 품는 일에 온 교우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3사람 이상의 태신자를 품으시고, 태신자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해든솔 선교활동을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이번 주간은 민족명절인 추석이 있는 감사절기입니다. 명절기간동안 (18-20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예배는 쉬겠습니다(새벽, 수요일, 금요일기도회).
5. 추석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만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교우소식 : 김춘자권사님의 아들 구원회성도가 발목을 수술하고 동수원병원 716호실에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말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옛날 한 정원의 영주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젊은 정원사의 일과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정원 구석구석을 아주 열심히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요령도 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통 화분에 꽃을 정성껏 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화분에다 꽃을 조각한다 해서 품삯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거기에서 그토록 정성을 들이는가?”

젊은 정원사는 이마에 맺힌 땀을 옷깃으로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정원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게 꾸미려고 화분에 조각을 하지요. 조각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틈만 나면 화분에 꽃을 새겨 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는 자신의 말은 일이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겨서 그에게 조각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젊은 정원사가 뒷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조각가요, 건축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쓴 책 중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지미 카터가 한평생을 지향했던 그의 좌우명이 나옵니다. 그의 좌우명은 이렇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좌우명을 선택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해군장교가 되기 위하여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바로 직전에 그 유명한 해군 제독 릭오버 제독과 함께 면담할 기회를 가졌는데 제독께서 이 젊은 사관에게 전술과 전략 그리고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젊은 사관은 땀을 흘리면서 별별 떨며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이야기한 후에 화제를 좀 부드럽게 바꾸면서 말씀하기를 "공부는 재미있었는가? 성적은 어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지미 카터의 성적이 관찰았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점수와 등수를 말씀드렸더니 제독께서는 다시 물기를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하고 물으니 카터는 식은 땀이 나면서 별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요." 그때 제독은 무섭게 쏘아보며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대답을 못하니 다시 물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고 있지 않느냐?" 그는 더 더욱 대답할 수가 없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안드레 허웅 김순님 박정일 박지영 박치국 이영란 서영자 안해숙 이미령
- 감사헌금 : 김희선 김동현 김순철 이종춘 심문자 최근배 김해경 신공님 홍경호 김정민 박치국 이영란 이현옥 무명 김홍영(추도) 김동현(일천번제)
- 건축헌금 : 박치국 이영란 허웅 김순님 안해숙 마르다 사라희
- 비전씨앗 : 배영인
- 선교헌금 : 이영란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김금자	4	11,000	김귀례	7	강은순	이영선	강은순	9	15,000	80	김성희	
2	정정희	김한순	박상귀	6	27,000	김한순	8	김순님	오복실	오복실	4	20,000	50	김상예	
3	이춘호	함경숙	박경자	3	20,000	200	함경숙	9	김인순	이영란	박치국	3	15,000	80	김선자
4	김기희	최경선	정선례	5	21,000	55	주종임	10	장영분	박현순	안복선	3	15,000	100	노재의
5	이문순	원해경	한은미	3	20,000		남궁순	계				40	164,000	670	
6	류종란	김해자	교 회	3	15,000	105	강진숙								

**예배시간안내**

구분	요일	시간	장소	구분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9시, 11시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 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일	오전 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2:30	전도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37 2013.9.15.

**9 월의 행사**

1. 평신도 참여예배 - 9월 15일 - 남신도주일(바나바, 바울회)
2. 해든솔 선교활동 - 9월 14일(토) 오전8시30분
3. 전교인전도대회 - 9월 29일(주일 찬양예배시간)
4. 교단총회 - 9월 24-27일(군산성광교회)
5. 5개 노회 당회원 체육대회 - 9월 9일

**2013년 사도행전 전도축제**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을 구하는 교회

**12주 85일의 전도축제**

2013년 9월 1일 - 11월 17일

**기도로 품고,  
마음으로 심고,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 \* 전도축제 기간 중 매일 기도한다.
- \* 한 사람이 3사람의 태신자를 품는다.
- \* 목 표: 태신자 300명, 전도초청100명, 결신30명.

**담당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 김영란 반주: 안진영**